

‘블루넨 오리지널 레이블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와인’

## 블루넨 패밀리 트래디션

BLUE NUN FAMILY TRADITION



지역	EU		
포도품종	리슬링 100%		
알코올	10%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2℃		
테이스팅 노트	균형 잡힌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 깊이 있는 여운이 돋보이는 와인이다. 잘 익은 과일 향과 은은한 플로럴 아로마가 어우러져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며, 가벼운 스튜, 닭고기 요리, 채소 요리, 아시아 음식이나 생선 요리와 특히 잘 어울린다.		
페어링 TIP	생해산물/ 흰 살 생선/ 채소(샐러드) / 부드러운 치즈 / 단단한 치즈 / 밀가루 음식 / 디저트		



### 제품설명



많은 사랑을 받아온 블루넨 오리지널 레이블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페셜 에디션 와인이다. 블루넨의 ‘Sichel Superior Vinification’ 인증을 통해 생산된 이 와인은, 최고의 포도밭에서 엄선한 포도를 정성스럽게 압착하고, 저온 발효와 숙성을 거쳐 병입까지 철저히 관리해 완성되었다.

일상은 물론 격식있는 자리에서도 두루 어울리는,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이다.

### 와이너리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인 블루넨은 지셀 존에 의해 1921년 설립되었다. 1995년 랑구스 사와 합병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블루넨은 더욱 모던하고 상큼한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와인이 되었다. 블루넨은 문자 그대로 ‘푸른 옷을 입은 수녀’라는 뜻으로, 오래 전부터 와인은 성스러운 장소인 수도원이나 성당에서만 만들 수 있었으며,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수녀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품질의 포도원액과 어울리는 푸른색의 미려한 병모양은 다양한 계층의 와인 애호가들의 욕구를 언제나 충족시켜 왔다. 블루넨의 오랜 역사와 모던한 기풍은 크발리테츠바인에서부터 아이스바인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